

발표요약문

발표 요약문

항만 미래를 위한 디지털화

키워드: 디지털화, 해운, 항만, 코로나 19 대응

경기 부양책, 전자 상거래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페이퍼리스·비접촉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항만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 프로세스를 가속화시키고 항만과 정부에 시급한 대응 과제를 부여했다. <2021 UN 무역개발위원회 디지털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2016년까지 전 기간의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총계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가 항만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주요 전략자산이 된 셈이다. <2021년 UN 무역개발위원회 디지털 경제 보고서>는 날로 증가하는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의 영향도 살펴본다.

항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급 불일치로 화물 운임이 사상 최소치로 치솟았다. 선사, 항만, 화주 모두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를 맞닥뜨린 가운데 2020년 말부터 초유의 컨테이너 부족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컨테이너 부족 상황에 대비하거나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비상 계획은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 활성화와 공급망 내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세관, 항만 노동자, 운송사들은 물리적 접촉을 줄이며 선박 이동, 항만 개방, 무역 흐름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UN 무역개발위원회가 제시한 무역 활성화 솔루션은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무역 및 운송 촉진에 기여한다. 수많은 조치의 성패가 해운을 비롯한 무역 절차의 디지털화에 달려있다. 항만과 공급망의 디지털 솔루션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